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결과 보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01년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

- 20년 간 7,197명(한국 1,993명·중국 2,553명·일본 2,626명·TCS 25명) 참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간 산학관 비즈니스포럼,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식품·관광포럼, 총장포럼, 물류포럼, 전체회의, 전시회 등 경제협력 사업 시행 및 공로자 표창
- * 산학관 협력, 도시환경 개선, 철도·항만 복합물류, 전시회 개최, 산업단지개발, 공동연구, 인재육성 등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인재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실행

1.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 개요

- 일시 : 2022. 11. 24(목)~26(토) ※본회의 11.25(금)
- 장소 : 한·중·일 온라인 화상회의(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형)
 - (韓) 부산광역시 롯데호텔 부산 ※개최국 : 한국
 - (中) 상무부(북경시),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지린성, 허베이성, 텐진시
 - (日) 후쿠오카시 전기빌딩 공창관(共創館) 컨퍼런스 A
- 참석 : 한국·중국·일본(큐슈)의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315명(한국 141명, 중국 117명, 일본 55명, TCS 2명)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부산, 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단체(부산경제진흥원,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41명

※환황해 지역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6시9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중국】 상무부, 지방 정부, 경제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17명

※환황해 지역 : 베이징시, 텐진시, 상하이시, 산둥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장쑤성, (3시 6성) / 광둥성, 지린성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지자체,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55명

※환황해 지역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7현 3정령시)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구마모토시

【TCS】 한중일삼국협력사무국 2명

- 주최 및 주관
(韓)산업통상자원부 · 한일경제협회, (中)상무부, (日)경제산업성
큐슈경산국 ·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 회의 테마 : ‘한중일 환황해 지역 간 교류의 촉진’

2. 주요 성과

- 한·중 수교 30년, 중·일 수교 50년, 환황해 회의 20회째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여, 3년 만에 개최된 한중-한일-중일 정상회의 직후 한중일 지역 간 교류 촉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환황해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을 테마로, 환경·서플라이체인·탄소중립·디지털·지역 간 교류 등 3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
- ‘22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발효와 함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6배 성장
* '01년 약1,600억 달러 → '21년 약7,353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20%로 증가)
- 경제·기술 분야, 지역 간 교류 분야에서 3국 지역 간 협력 및 경제·기술교류 사례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환황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3국 협력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조, 인공지능분야 기술·인력교류 네트워크 구축, 동아시아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 등 3국 공통과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협력 등을 제안
- 차기회의(제21회 환황해 회의)는 중국 대련시에서 개최

3. 세부 내용

- 한·중 수교 30년, 중·일 수교 50년의 기념비적인 해에, 본회의도 20회째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여, 3년 만에 개최된 한중-한일-중일 정상회의 직후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교류 촉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환황해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을 테마로, 환경·서플라이체인·탄소중립·디지털·지역 간 교류 등 3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
 - 코로나19 사태 지속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증진 공감대 형성
- ‘22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공식 발효와 함께, 한중일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4배 성장
- ‘01년 약1,638억 달러 → ‘21년 약7,353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20%로 증가)
- 경제·기술 분야, 지역 간 교류 분야에서 3국 지역 간 협력 및 경제·기술교류 사례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금번 회의시 ‘환경·서플라이체인·탄소중립·디지털 등 경제기술분야, 지역 간 교류분야에서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18개의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차기회의를 중국 다롄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환황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3국 협력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조, 인공지능분야 기술·인력교류 네트워크 구축, 동아시아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등 3국 공통과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협력 등을 제안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경제 기술 분야	① 한중일 3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 공조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조 ③ 동아시아 분업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 구축·공급망 협력 ④ 한중일 3국 경제의 공통 당면과제 협력(코로나·탄소중립등)
	지역 교류 분야	⑤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협력 ⑥ 산업 대전환기의 국가 및 지역간 협력(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중국	경제 기술 분야	① 창춘국제협력시범구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② 산둥성 RCEP의 고품질 추진 ③ 허베이성 스좌장시 투자 촉진 ④ 랴오닝성 동북아경제무역협력센터 건설
	지역 교류 분야	⑤ 장쑤성 투자 촉진 ⑥ 광둥성 대만구 호혜 공영 도모 ⑦ 허베이성 탕산시 투자 촉진 ⑧ 허베이성 창저우경제개발구 경제무역 협력 강화
	차기 회의	⑨ 제21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다롄시)
일본	경제 기술 분야	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석탄재 활용 탄소중립기술 ② 도시광산(폐전자기판) 자원의 환경, 리사이클 사업 ③ 고구마 발전과 폐열을 활용(바이오가스)한 탈탄소 대처
	지역 교류 분야	④ 투르·드·큐슈(큐슈행정, 경제계 합동 국제사이클 이벤트)

□ 제20회 회의를 기념하여 기념 활동영상을 소개, 환황해 회의 홍보 및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

- 본회의, 비즈니스 포럼, 물류 포럼, 산업단지특구포럼, 관광포럼, 총장포럼, 3국 국장회의, 비즈니스 상담회 등 병행개최 프로그램 소개

4. 평가

- 이번 회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22년 2월 공식 발효후 개최된 3국 간 민관합동 경제교류 회의로서,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증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음

- 코로나19 사태 지속, 보호무역,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속에도, 지역간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3국이 협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데 지역의 공감대 형성
-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이벤트 및 관광 자원 등의 사업 및 지역 알리기에 기여
 - 개최지역인 부산광역시의 산업·지역 알리기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5.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 한중일 3국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3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 협의 및 사업 실행
 - 3국 간 제안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 협의
- 환황해 회의는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을 강화

<참고 1>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주요 발표내용

(한국측) 환황해경제·기술회의 주요 발표 내용

□ 3국 대표 개회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 전 세계 GDP의 26%,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3국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

○ 상무부 아주사 구오춘슈이 부사장

- 한·중·중·일 정상회의 개최, 때려야 뭉 수 없는 이웃으로 공존 관계, 한·중수교 30주년, 중·일 수교 50주년의 방향 제시
- 2022년 RCEP 발효, 아세안+3 정상회의 25주년 성장 모멘텀
- 중국의 각 성시에서 역대 회의에 참가, '지역간 교류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공유, 지혜를 나누고 배우면서 상호 발전을 기대

○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나무라 키미히데 국장

- 환황해 회의 온라인 대면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간 교류 활성화 의지를 느꼈음
- 경제기술분야 : 탄소중립 등 대처사례 소개, 지역간 교류분야 : 투르 드 규슈 프로젝트 소개
- 3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

□ 개최지 대표, 내빈인사

○ 부산광역시

-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호소

○ 한중일협력 사무국(TCS) 사카타 나츠코 사무차장

- 코로나의 장기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위기, 세계 경제 침체 등은 한 국가의 힘 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우며, 상호 협력이 필요
- 한중일 서미트의 제도화, 21개 고위급 회담 및 70여개의 정부간 회의 통해 폭넓은 분야 협력
-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이 있으며 RCEP, 탄소중립분야 등 협력 기대

□ 경제·기술분야

○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장정재 연구위원

- 주제 : 한중일 전자상거래 운영현황 및 협력 방안
- 코로나19 이후 사람/물자 이동 제한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고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 (중국 1위, 일본 4위, 한국 5위)
-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 방식의 '디지털 무역' 발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변화

- 한중일 대표적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3국 협력방안을 제안
 - ①한중일 3국 공동 인프라 구축으로 상호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디지털 거점,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
 - ②한중일 상호간의 디지털 거점시설 이용을 위한 협력(상대국 라이브 커머스 시징진출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거점시설 상호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
 - ③한중일 3국 공동 물류클러스터 구축으로 네트워크 연결(빠른 배송,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규 항공 및 해운 경로 증설)

□ 경제·기술분야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김계환 본부장

- 주제 :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한중일 협력
- 글로벌 공급망에서 동아시아의 역할과 특징
 - * 국제 분업과 투자에서 동아시아의 위상 변화, 동아시아 국가간 분업과 투자구조의 특징
-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 현황과 잠재력
 - * 공급망 재편의 주요 동력, 국가간 보완성과 분업 확대·심화의 잠재력
- 동아시아 국가간 분업 확대·심화를 위한 협력 방안
 - * 공통의 도전 과제 다자간 협의 채널 구축, 공급망 협력 민간 협력 기반 확대, 포용성 강화를 위한 개도국 공동 지원 협력

□ 경제·기술분야

○ 동의대학교 인공지능 그랜드ICT연구센터 정석찬 센터장

- 주제 : 한·중·일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협력 방안
- 한·중·일 3개국의 인공지능 현황 및 트렌드 분석과 상호협력 가능한 서비스 모델 발굴
 -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중·일 3개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현황과 주요 트렌드, 인공지능 기술 선도 기업 등을 분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 한·중·일 3개국이 기술·산업교류를 통해 공동협업하려면 플랫폼 구축이 필요
- 한·중·일 3개국의 교류사례 및 인공지능 관련 협업분야 제시
 - * 한중일 3국 대표 통신사간 협력체계 제안 및 구축(한국 KT,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
 - * 3개국의 상호협력이 가능한 AI 서비스 플랫폼중 하나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진 (관광/물류 플랫폼, 헬스케어 플랫폼, 에너지/환경 플랫폼, 생활 플랫폼, 교육 플랫폼)
 - * 협업을 통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신규 플랫폼 개발·서비스
-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한중일 교류방안 제시
 - * 동의대학교 인공지능 그랜드ICT연구센터와 같이 각 국가별 인공지능 거점 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3국이 활발한 기술과 인력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 *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기술교류 포럼 및 세미나, 전문인력 파견 등 국가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네트워크가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제·기술분야

○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강계두 교수

- 주제 : 한중일 공통 당면과제와 3국간 협력방향

- 동북아 한중일 3국 경제의 공통 당면과제
 - * 한중일 3개국은 인구고령화와 출산력 하락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 저성장·코로나 극복 등으로 인해 적자재정과 정부 부채 부담 가중 등 공통적인 과제에 직면
- 한중일 3국 경제의 경쟁력 분석(제조업, GVC, 제4차산업혁명)
- 향후 한중일 3국 간 관계 및 협력 전망
 - * 한중일 간의 상호 의존성과 필요성
 - * 한중일 관계의 3가지 유형 : 대립 및 경쟁 속 가능한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공존
 - * 지속적인 한중일 3국간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발전의 중요성
 - * 한중일 경제권은 동북아 지역뿐만아니라 아시아로 시야를 넓혀 상호경쟁하고 협력·상생

□ 지역 간 교류 분야

○ 부산광역시 대외협력과 황현기 교섭지원팀장

- 주제 : 미래세대를 위한 원대한 도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사회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연,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 변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간과 기술·자연·사회의 조화 속에 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되고, 소외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라는 세 가지 부제를 선정
- 경제발전의 모든 단계를 거쳐온, 부산의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

□ 지역 간 교류 분야

○ 연세대학교 김상준 교수

- 주제 : 산업 대전환기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간 협력방안
- 한국, 중국, 일본이 역내의 기술발전과 축적을 위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기업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맥락에서 분석
 - * 역내의 기술의 순환, 축적,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어떻게 유기적 결합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
- 산업 대전환기의 한국의 삼중고(경제 이중구조, 교육차등, 지역불균형)와 해법(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

(중국측) 환황해경제·기술회의 주요 발표 내용

□ 경제·기술분야

○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당업무위 쉬 용(徐 勇) 서기

- 주제 :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및 동북아 경제무역 협력 심화
- 동북아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소개
- 국가급 개발구로서 동북아지역 공급망 협력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무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 협력과 공동번영의 생태계를 함께 구축

□ 경제·기술분야

○ 산둥성 상무청 뤼웨이(吕 伟)

- 주제 : RCEP의 고품질 추진 환황해지역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력
- 산둥성 개요
 - * 중국 유일의 상주인구 및 호적인구 모두 “1억 명”초과, 유가사상의 발원지로 “공자와 맹자의 고향·예의의 고향, 농작물생산량 중국 내 선두권, 2021년 GDP 8조위안 돌파
- 산둥성은 RCEP 실시 적극 추진
 - * 정책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선도적 실행조치 계획 및 도입
 - * 선도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 활동에 초점을 맞춘 산동지역 특색 브랜드 구축
 - * 원활한 물류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편의성 수준 제고

□ 경제·기술분야

○ 허베이성 스자좡시 투자촉진국 자오융(赵 勇) 국장

- 주제 : 스자좡·기대에 찬 미래
- 수도 베이징시에서 가장 가까운 허베이성의 성도로서 교통 허브 도시 「스자좡시」 소개
- 한국 천안시, 일본 나가노시와 자매도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우호협력 관계 구축
- 스자좡시에 설립된 한국, 일본 외국인 투자기업은 28개사로 총 3.4억달러 투자

□ 경제·기술분야

○ 랴오닝성 상무청 판 샹(潘 爽) 부청장

- 주제 : 랴오닝성 동북아 경제무역협력센터 허브 건설을 통한 전면적 대외개방의 새로운 지평 개척
- 랴오닝성 ‘일대일로’ 건설에서 북방으로 열린 중요한 창구로, 환발해 경제권에서 중요한 위치 점유(유럽의 중심지로 이어지는 중국-유럽횡단철도 건설)
- 랴오닝-한·일 경제무역협력의 우수한 기반구축(Panasonic, SK, Posco, Omron, 일본전산등)

□ 지역 간 교류 분야

○ 장쑤성 쑤저우시 상청구 장웨이(张 伟) 구장

- 주제 : 활발한 온라인 상의 만남으로 상청에서 꿈을 이루자
- 상청구 개요 및 발전 현황(상청구 전역이 중일(쑤저우)지방 발전 협력 시범구역으로 선정)
- 중일(쑤저우) 지방 발전 협력 시범구역 현황, 청타이 국제 공업디자인 빌리지 소개

□ 지역 간 교류 분야

○ 광둥성 후이저우시 상무국 류즈홍(刘志宏) 부국장

- 주제 : 대만구(大灣區)에 모여 '호혜' 공영을 도모하자
- 광둥성 후이저우시 투자 환경 소개
- 후이저우시는 한중산업단지가 구축된 중국의 3개 도시 중 하나로 홍콩, 마카오와 근접.
- 한국, 일본과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SK /소니, 혼다, 스미토모, 미쓰비시 화학 등, '22. 8월 현재 한국기업 312개, 일본기업 118개 투자)

□ 지역 간 교류 분야

○ 허베이성 탕산시 상무국 자이신위(翟新宇) 부국장

- 주제 : 탕산(唐山)시 투자환경 소개 투자유치를 위한 연결고리, 투자를 위한 가교
-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투자환경 소개
- 2021년 탕산시 GDP 8,231억 위안 실현, 허베이성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유지, 중국 전체 도시 중 27위 기록, 1인당 GDP 10만 위안 돌파, 10.7만 위안 달성
- 탕산시의 투자 유망 분야 : 철강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응급장비산업, 무역물류산업, 화학공업산업, 친환경 건자재 산업, 신에너지 및 신소재 산업, 바이오헬스산업, 해양사업

□ 지역 간 교류 분야

○ 허베이성 창저우(滄州)경제개발구 투자촉진국 쑨 보(孙 博) 국장

- 주제 :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 심화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 창저우(滄州)경제개발구 소개
- 허베이성 한중 산업협력 시범단지로 자동차 산업 규모 확대 추진, 한중일 산업기지로 성장 기대

(일본측) 환황해경제·기술회의 주요 발표 내용

□ 경제·기술분야

○ (주)쿠린카(클링커/석탄재) 우메키 신이치(楳木 真一) 대표이사사장

- 주제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기술 소개 ~재해 리질리언스(회복력) 향상을 향해~
- 석탄재(多孔質, 高흡수성) 활용기술 소개, SDGs 솔루션(도시형 수해대책, 히트 아일랜드(열섬)대책/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유효활용/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 보전/육상 생태계 보전)
- * 도로·길 :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빗물·잡초 대책), 탄소중립 대응 인공경사면(法面) 보호 (토사 유출 억제·폭우에 강한 부지)
- (제언) 정책대화로부터 기술교류

□ 경제·기술분야

○ (주)아스텍이리에 타카하시 히로유키(高橋 宏幸) FM 사업부 기술그룹 리더

- 주제 : 도시광산(폐전자기관)에 함유된 자원의 손실을 줄이고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
- (환경, 리사이클 사업소개) 염화철 리사이클로, 니켈 분리 회수하는 독자기술(6,000t /월)
- (도시광산 리사이클 특징) 귀금속·각종성분 고농도화→과열 수증기처리·귀금속 고농도화
- (회수한 금의 활용사례) 교토마라톤 금메달 제작사례(교토시 회수 가전기판, 금회수 제공)

□ 경제·기술분야

○ 키리시마주조(주) 타하라 히데타카(田原 秀隆) 그린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제 : 자원의 유효 이용을 통한 고구마 발전
- 자원(고구마 부스러기, 소주 지게미/주박)의 유효 활용 : 15톤/1일 고구마 및 850톤/1일 소주 지게미 활용 약 2400세대분의 전기생산(600만kWh) 및 큐슈전력에 판매(약 2.3억엔)
- 고구마 발전과 폐열 이용 : 잉여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이용률 100%를 지향,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환경활동(환경성과 경제성),
- * 회사 전용차의 전동화(2030년), 재해시의 전력공급(2021년~)
- 탈탄소를 향한 대처 : Co2 배출량/삭감률(2013년 27,067/100% → 2030년 13,530/50%), 순환형 소주 제조(바이오 가스 활용, 잉여분 에너지 사용, 발전전기 사내 이용, 퇴비활용)

□ 지역 간 교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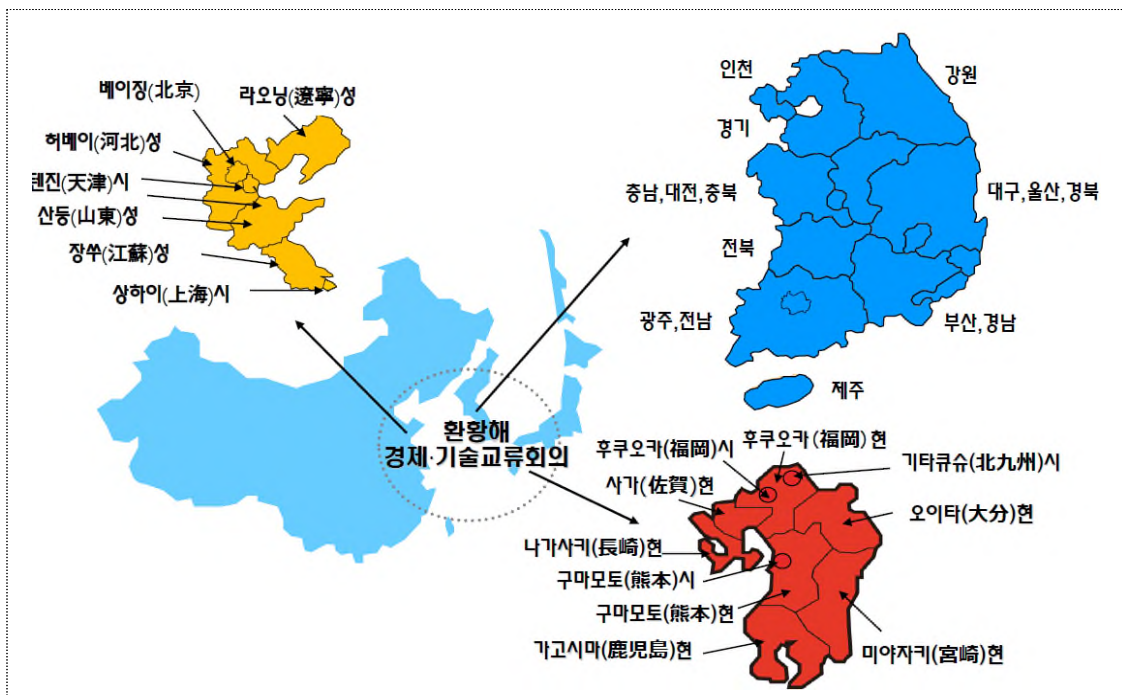
○ 일반사단법인 규슈경제연합회 나카가와 노부하루(中川 信治) 관광사회기반부 부장

- 주제 : 투르·드·큐슈 프로젝트에 대해서 ~큐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 투르·드·큐슈(큐슈 행정, 경제계 합동 사이클 이벤트)
- * 기간·장소 : 2023. 10, 큐슈지역
- 개최성과 : 코로나 부흥의 심볼, 이벤트 경제효과 최대화로 지방 활성화에 공헌, 큐슈·야마구치 지역 매력 홍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사이클 스포츠의 보급확대 효과

참고1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 **(배경)** ASEAN+3 정상회의('99년 필리핀, '00년 싱가포르)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적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
- **(목적)** 한중일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 **(현황)** 제1회('01.3월, 일본 후쿠오카) 개최 이래 한-중-일 順으로 순회 개최
 - 총 20회 개최, 총 참가자 7,197명(韓 1,993명, 中 2,553명, 日 2,626명, TCS 25명)



- ▶ 한국(6시 9도)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 ▶ 중국(3시 6성)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허베이성, 지린성
-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 **(성과)** 한중일 3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
 - *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 '01년 1,638억불에서 '21년 7,353억불로 약 4.4배 성장

1. 행사 개요

- (주제) ‘한중일 환황해 지역 간 교류의 촉진’
- (일시/방식) ‘22.11.25(금), 15:00~19:15 / 한중일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회의’
 - * (韓) 부산 롯데호텔
 - (中) 상무부(북경시),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지린성, 허베이성, 톈진시
 - (日) 후쿠오카시 전기빌딩 공창관(共創館) 컨퍼런스홀
- (주최·주관) (韓)산업부·한일경제협회, (中)상무부,
(日)경제산업성 큐슈경산국·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 (참석자) 3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인 등 약 315명
 - (韓)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中) 구오 춘슈이(郭春水)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
 - (日) 나무라 키미히데(苗村 公嗣) 큐슈경제산업국장,
호리에 히로시게(堀江 廣重) 큐슈경제연합회 상무이사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20회 기념 활동영상 소개 및 개회	(韓)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5:10~15:40	3국 대표인사·개최지 인사·TCS 내빈인사·기념촬영	(韓)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中) 중국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 (日) 큐슈경제산업국장 (개최지)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 (내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15:40~17:15	(세션1) 경제·기술분야	(韓) 부산연구원, 산업연구원, 동의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中) 창춘국제협력시범구, 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日) (주)쿠린카, 기리시마주조(주)
17:25~18:55	(세션2) 지역 간 교류	(韓) 부산시, 연세대 (中) 장쑤성, 광둥성, 탕산시, 창저우경제개발구 (日) 큐슈경제연합회
18:55~19:05	차기 개최지 소개	(中) 다롄시(大連市) 상무국 국장
19:05~19:15	전체 총괄 및 폐회인사	(韓)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부산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2022.11.27, 10:01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롯데호텔부산에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00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세 국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열린 제20회 회의는 산업부 주최로 부산에서 열렸으며, 회의 주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psj19@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7017300051?input=1195m>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한중일 공급망·탄소중립 협력논의

2022.11.25, 11:00

부산서 개최...2030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중일 3국이 맞닿은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이 함께 개최하는 이 행사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열려왔다.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주최로 부산에서 열렸으며, 각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먼저 경제·기술 협력 방안 논의에는 한중일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공급망과 탄소중립 등 당면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시와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은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중일은 전세계 GDP의 26%,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과 디지털전환 등 미래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hee1@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56900003?input=1195m>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부산서 내년 개최...한중일 협력 모색

2021-11-18, 08:12



한중일 공동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내년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부산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九州) 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처음 열렸다.

한중일 3개국은 이 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왔다.

한중일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천638억달러(약 19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6천 381억달러(약 753조9천억원)로 3.9배가량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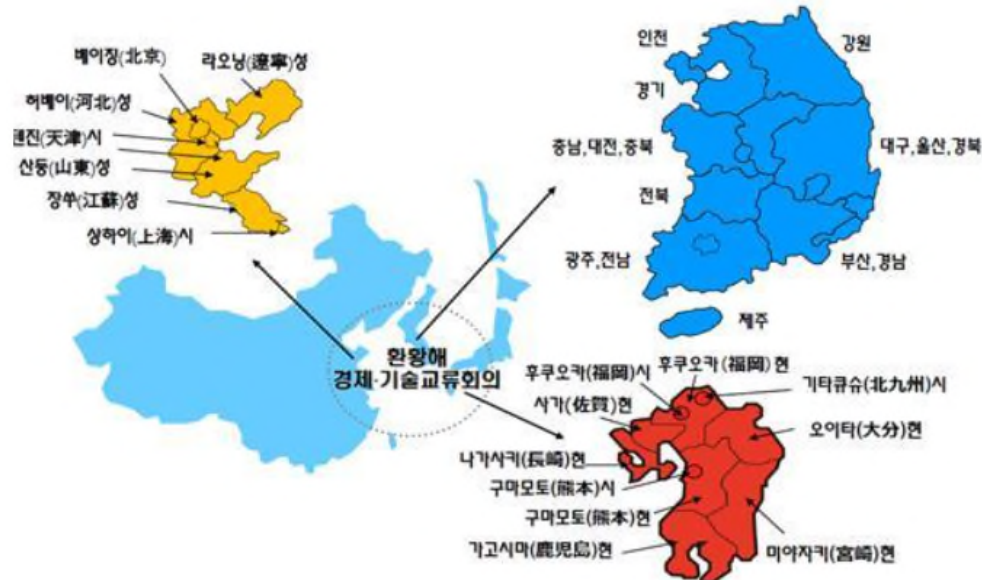
내년 11월 부산에서는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규슈 지역의 투자 유치와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교류회의가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 부산을 소개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부산 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8021200051?input=1195m>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2030엑스포 지지 요청

2022.11.25, 11:00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2000년 아세안+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한국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국 관계자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큐슈경제 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3국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 뉴시스 김성진 기자 ksj87@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009&cID=10401&pID=10400

차기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지 부산으로 확정

2021.11.18, 08:32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장소로 부산이 확정됐다.(사진 =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차기 회의가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리게 됐다.

부산시는 18일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부산 유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다. 19회 회의는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부산시는 위드코로나 시대 한·중·일 3국의 정부와 경제인이 다수 참여하는 경제협력 분야의 빅이벤트가 필요해 적극 유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지역 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11월에도 한일 경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등 유치 분위기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회의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일경제협회, 상무부 아주사, (사)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가 공동 주관으로 2박 3일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18회 차까지 누적 참가자 수가 6500명에 달해 내년 ‘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는 5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뉴시스 백재현 기자 itbrian@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8_0001655489&clID=10811&pID=10800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공급망·탄소중립 등 당면 과제 논의

올해 20회째, 한국 주최로 부산서 개최

2022.11.25, 11:00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협력 및 탄소중립 기술 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부산 롯데호텔과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행사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20회 회의는 한국 주최로 부산시에서 개최됐으며 온라인을 병행해 3국의 관계자 및 기업인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주)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 공동의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한국 부산광역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 및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전 세계 GDP의 26%,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면서 "3국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세종 뉴스1 나혜윤 기자 freshness410@news1.kr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875943>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10:32



부산광역시청 전경 News1 DB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돼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또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뉴스1 박채오 기자 chego@news1.kr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496882>

한·중·일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지역 간 교류의 촉진'

2022.11.28, 19:20



▲ 한·중·일 경제 교류의 장인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C) 배종태 기자

한·중·일 경제 교류의 장인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25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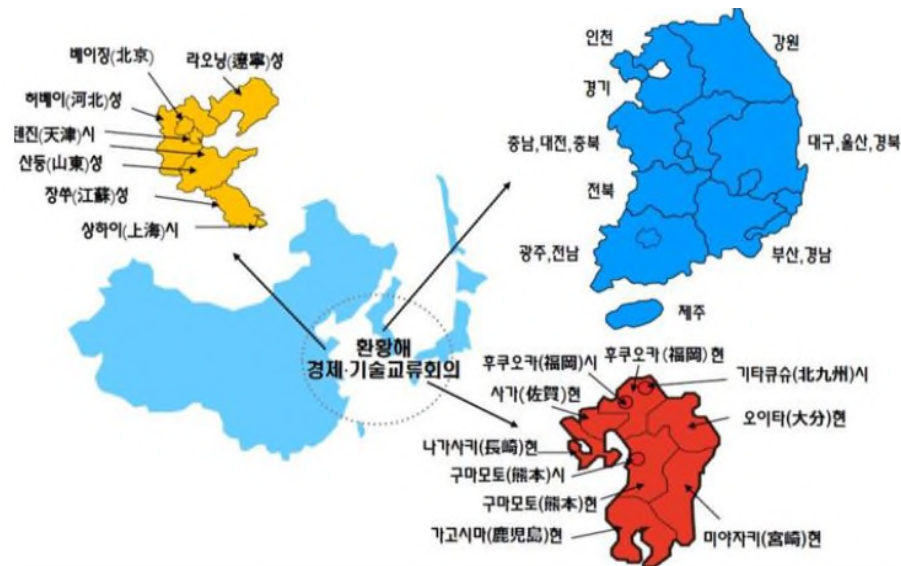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0년 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베이징, 텐진,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지린성 등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등 한·중·일 3국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총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주)쿠린카 등 10개 기관. 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 공동의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국의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큐슈 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의했다.

한편,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 했다.



▲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 참여 지역> (C) 배종태 기자



▲ '지역 간 교류의 촉진' 이라는 주제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가 25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C)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 배종태 기자 119@breaknews.com
출처 : <https://www.breaknews.com/936078>

부산시,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9, 12:07



▲ 부산시청 전경 (C)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는 등 산업부, 한일경제협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국제 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며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119@breaknews.com
출처 : <https://www.breaknews.com/849280>

부산시 열린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성료

2022.11.27, 09:15



▲지난 25일 부산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모습. 부산시 제공

한·중·일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이 부산에 모여 3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20회 회의는 산업부(장관 이창양)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한·중·일 경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시가 지난해 11월 정부와 한일경제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따낸 성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베이징 등 8개 지방정부와 일본 규슈, 후쿠오카 등 한·중·일 3국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총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3국간의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주)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의 공동 당면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한국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이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정용부 기자 demiana@fnnews.com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11270907584426>

한·중·일 땀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대회' 성료

2022.11.27, 20:06



▲지난 25일 부산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모습. 부산시 제공

각국 산업부·기업인 300명 모여

한·중·일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이 부산에 모여 3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20회 회의는 산업부(장관 이창양)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한·중·일 경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시가 지난해 11월 정부와 한일경제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따낸 성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베이징 등 8개 지방정부와 일본 규슈, 후쿠오카 등 한·중·일 3국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총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3국간의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주)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의 공동 당면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한국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이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정용부 기자 demiana@fnnews.com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11272005522835>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10:32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돼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명에 이른다.

또 교류회의를 통해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 2001년 이후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111181021229174>

부산서 환황해 지역 중심 한·중·일 경제 교류의 장 열려 ...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2022.11.27, 19:09

25일 오후3시 롯데호텔부산, 한·중·일 3국 관계자·기업인 총300여명 참석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 중국·일본 참석자들 관심·지지 요청



산업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지난 25일 오후 3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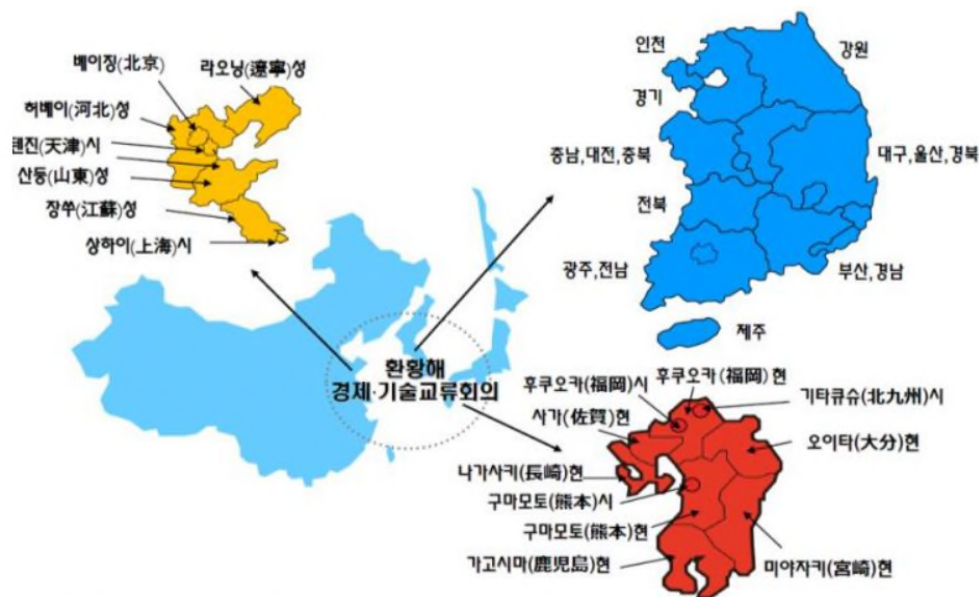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20회 회의는 산업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한·중·일 경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시가 지난해 11월 정부와 한일경제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따낸 성과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8개 (베이징·톈진·광둥성·산둥성·장쑤성·랴오닝성·허베이성·지린성)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등 한·중·일 3국의 산업 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총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3국 간의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 시범구, 일본 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의 공동 당면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 참여 지역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한국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이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재현 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e@asiae.co.kr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2719095540949>

부산시, 환 황해 지역 중심 한·중·일 경제 교류의 장 열려

2022.11.27, 09:15

제20회 환 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 : 부산시

부산시가 지역 간 교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와 기술의 지역 교류 분야에서 3국 간에 협력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20회 환황해의 경제와 기술에 대한 교류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아세안(ASEAN)+3 정상 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20회 회의는 산업부(장관, 이창양)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한·중·일 경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시가 지난해 11월 정부와 한일경제 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따낸 성과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등 한·중·일 3국의 산업 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총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주)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의 공동 당면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한국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 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이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6898816020>

산업부,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2030엑스포 지지 요청

2022.11.26, 18:00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는 2000년 아세안+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한국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국 관계자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 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코노뉴스 이종수 기자 jslee6679@naver.com

출처 :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075>

부산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열려...한·중·일 참여

2022.11.26, 19:36



▲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사진=부산시]

한·중·일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26일 부산시는 전날 오후 롯데호텔부산에서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세 국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올해 열린 제20회 회의는 산업부 주최로 부산에서 열렸으며, 회의 주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산업부처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출처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5826>

대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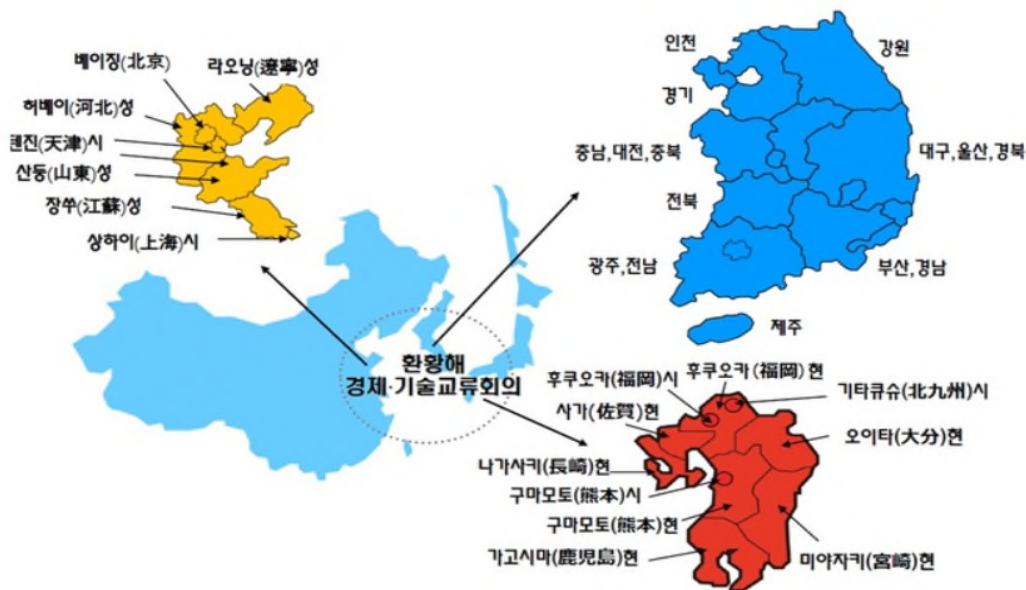
산업부,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2022.11.25, 11:00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지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25일 오후 3시 부산 롯데호텔과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 참여 지역. /사진:산업부 제공

올해 제20회 회의는 한국 주최로 부산에서 시행됐으며 온라인을 병행해 3개국의 관계자 및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개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개국 공동의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부산,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개국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 및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세계 GDP의 26%,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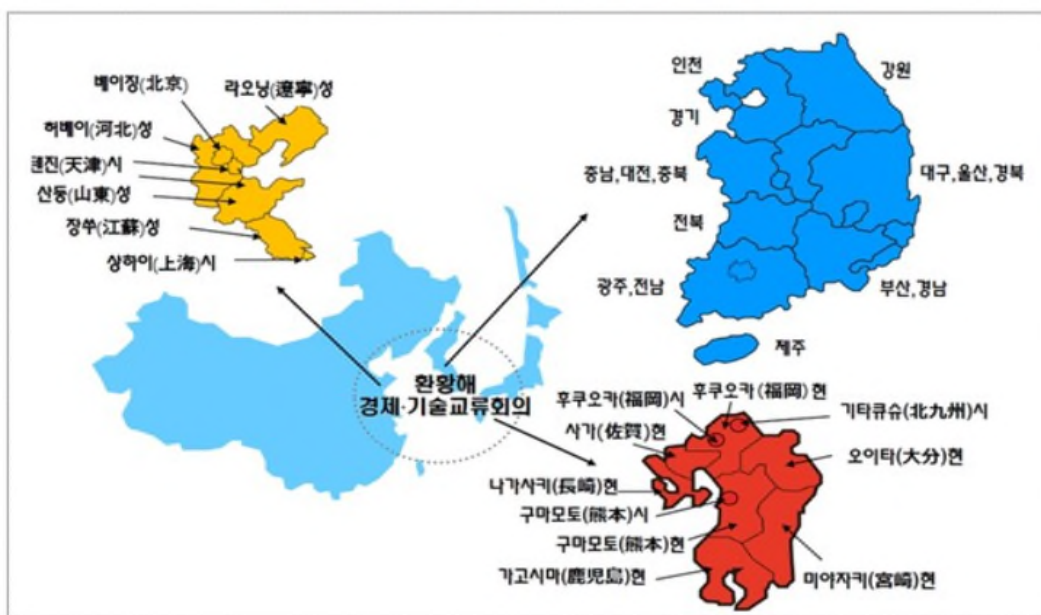
대한경제신문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1242334465040771>

산업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한중일 공급망·탄소중립 협력

2022.11.25, 11:34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 참여 지역>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는 2000년 아세안+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국 관계자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연구원,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부산시,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규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과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3국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 boomie@electimes.com

출처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956>

산자부 “한중일, 신뢰 바탕으로 경제협력 관계 지속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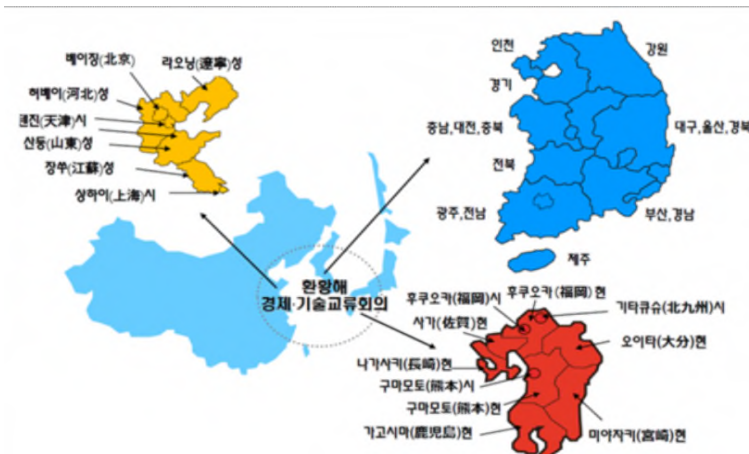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경제기술·지역교류 협력방안 논의

2022.11.25, 17:51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25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경제기술 교류 장(場)으로 2001년부터 3국이 교대로 행사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행사를 주최했다. 주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다. 3국은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산업연구원과 중국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일본 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은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인공지능 기술 등 3국 공동 과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참가국가와 지역.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와 중국 장쑤성·광둥성·산둥성, 일본 큐슈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은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호소했다.

김종철 산자부 통상협력국장은 “전 세계 GDP 26%, 교역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라며 “3국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출처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1250120>

'中·日 표심 잡는다'... '안방' 부산서 2030엑스포 집중홍보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부산 개최
한중일 경제·기술 협력 방안 등 논의
중국·일본 대상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2022-11-25, 13:48



지난 5월 31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중·일 3국의 통상 당국이 25일 부산에서 회의를 갖고 경제·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부산시는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을 집중 홍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중·일이 맞닿은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3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한다. 올해 제20회 회의는 한국 주최로 부산에서 열렸다. 온라인을 병행해 3국의 관계자 및 기업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3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3국의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한·중·일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부산엑스포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 및 일본 참석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6%,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미래 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전기신문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125.99099007949>

부산서 한·중·일 3국 경제협력 다진다

2021.11.19, 01:00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한·중·일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부산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본, 중국과의 교류사업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부산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한·중·일 3개국 정부·경제·학계 인사 500여명이 참가해 경제협력을 다지는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코로나 19 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으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 유치와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필리핀과 2000년 싱가포르에서 연속으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황해권의 정기적인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다. 2018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총 6471명이 참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3개국은 교류회의를 통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며,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지난해 6381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했다.

특히 내년에 열릴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리는 한편,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세계일보 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118507319?Out출처=naver>



부산 '경제 · 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18:17(지면A32)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2022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하며 여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이후 2018년까지 총 18차례 열렸으며 누적 참가자 수는 6500여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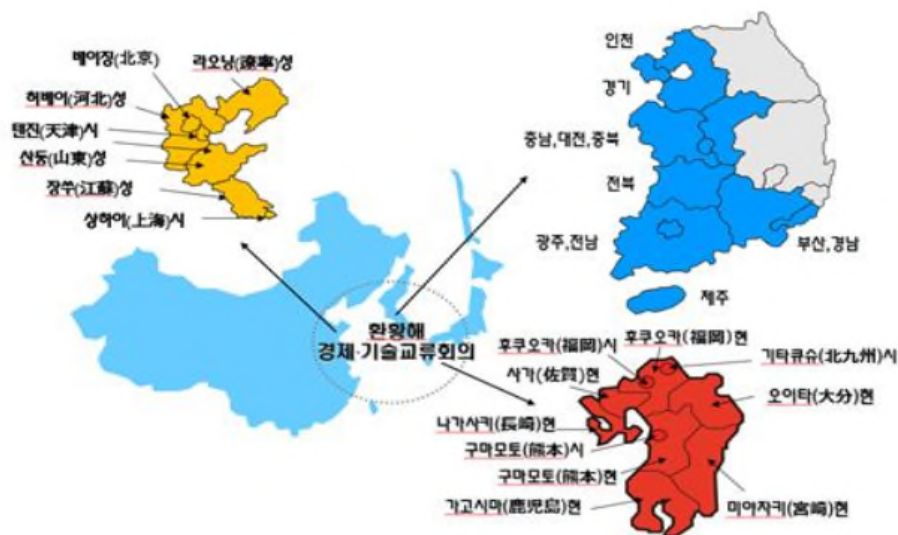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1891301>

한·중·일 동북아 3국 경제협력 통해 초광역경제권 추진

2021.11.18, 09:41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확정
2022년 11월 부산 개최, 3개국 산업부처 공동 주최
경제협력 강화 및 비즈니스 상담 등 개최 효과 극대화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명에 이른다.

또한,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부산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부산) 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18000164>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08:33

내년 11월 개최...한중일 3개국 정부·경제·학계 등 500여 명 참석 3개국 경제협력 강화 및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개최 효과 극대화

한국·중국·일본의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년도 국제회의인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린 이후 2018년까지 총 18번이 개최됐으며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교류회의는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 2001년 이후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부산에서는 내년 11월에 열린다. 3개국 정부·경제·학계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서울경제 부산 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2BT6Z2K>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유치 확정

2021.11.18, 16:01



한중일 지역간 경제 교류회의 교류지역(제공=부산시)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또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 한·중·일 초광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전국부 조영돌 기자 jyd5933@asiatoday.co.kr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18010011227>

부산,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15:50

내년 11월 개최... 한·중·일 경제협력 등 강화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2022년 11월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돼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다. 누적 참가자 수만 6500명에 이른다.

또한,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달러에서 2020년 6381억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

박형준 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 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

출처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157>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확정...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통한 초광역경제권 형성

2021.11.18, 21:22



부산시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또,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스포츠 경향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출처 :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11182122003&sec_id=564001&pt=nv

부산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내년도 유치 확정

2021.11.18, 21:36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시는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제일일보 김종창 기자

출처 :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627>

부산시, 내년 한·중·일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10:18

**3개국 순회개최...올해 19회는 일본 주최로 영상회의 진행
내년 회의는 11월 2박3일간 정부·경제·학계 500여명 참석**

부산시는 한·중·일 3개 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중·일 교류지역 현황표. [부산시 제공]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지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 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다. 올해 제19회 회의는 지난 16일 일본의 주최로 한국에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화상회의로 열렸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번 달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무역·투자·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유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4년 만에 2박 3일 일정으로 정부·경제·학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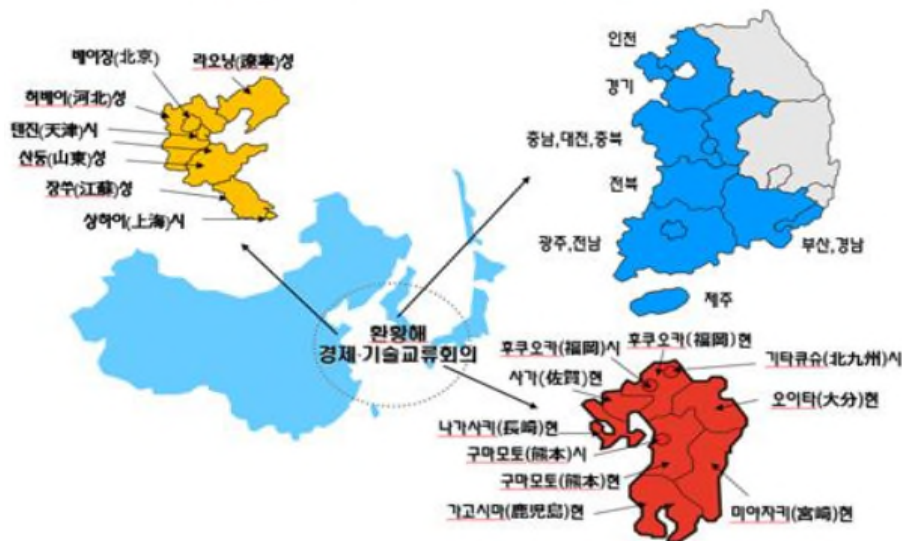
UPI뉴스 박동욱 기자 pku24@upinews.kr

출처 :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11180012>

부산시 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성공… 내년 11월 개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및 비즈니스 상담 등 진행

2021.11.18, 12:02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중·일 교류지역 현황표.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로 지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린 뒤 매년 순회 개최되고 있다. 부산시가 유치에 성공한 차기 회의는 내년 11월 열릴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취소 또는 비대면 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새로운 경제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교류회의 유치에 도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 협력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산업부, 한일 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및 인재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강화해 3국 초광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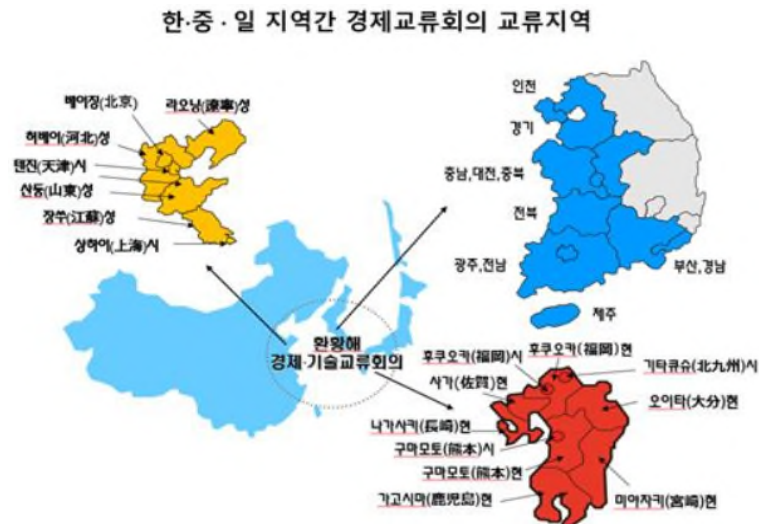
박형준 시장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 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홍보, 부산지역 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투자유치 촉진 등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일 3국이 새롭게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금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cnbnews 변옥환기자 *pku24@upinews.kr*

출처 :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519401>

부산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열린다

2021.11.18, 11:37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앞서 부산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경제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해 부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교류회의에 이어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는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한다. 한·중·일 초광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영남본부 김동현 기자 sis522@sisajournal.com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68>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2021.11.18, 10:50

부산시가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통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적극 추진한다.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 [그림=부산시]2021.11.18

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부산 뉴스핌 남동현 기자 ndh4000@newspim.com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8000409>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지로 부산 확정

2021.11.18, 11:00

2022년 11월 부산 개최...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 공동 주최
3국 경제협력 강화, 초광역경제권 도모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한중일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부산시

부산시가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지로 확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돼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명에 이른다.

또한,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하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큐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부산 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출처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040>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내년 유치 확정

2021.11.18 10:37



부산시는 내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확정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머니S 부산 박비주안 기자 moneys0811@mt.co.kr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11810288066620>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확정

2021.11.18, 12:53

**2022년 11월 부산에서 개최
약 500여명 참석할 듯**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동안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 산업 분야 국제회의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돼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다.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 하기 위해 논의를 한다.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제일경제 원동화 기자 dhwon@busaneconomy.com

출처 :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412>

부산시,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확정

2021.11.18, 10:03

**2022년 11월 부산에서 개최…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 공동 주최,
정부·경제·학계 등 500여 명 참석
코로나 이후,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및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개최 효과
극대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중·일 3개국 산업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회의인 2022년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간 추진해온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취소 또는 온라인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국제 교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를 추진했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부산에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 주최로 ‘기업 지속경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부산시와의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산업부, 한일경제협회 등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교류회의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3개국이 순회 개최하는 경제산업 분야 국제회의로,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어 2018년까지 총 18번이 열렸고 누적 참가자 수만 6,5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교류회의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자본,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및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해 왔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중·일 3개국 간 역내 교역량은 2001년 1,638억 달러에서 2020년 6,381억 달러로 약 3.9배 성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개최지인 부산을 소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통해 중·일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교류회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 규슈지역 간 투자유치, 인재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시는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하여 한·중·일 초광역 경제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0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규슈)경제협력회의 유치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역기업 수출 판로 확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중·일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시민일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출처 :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ew.php?ncode=1160258638837381>

**한 · 중 · 일 3국, 경제 · 기술 교류의 장 개최**

- 11.25(금), '제20회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개최 -
- 금년 한국 주최로, 부산광역시에서 2030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가 주최하는 「제20회 환황해 경제 · 기술 교류회의」가 11.25(금) 15:00에 부산 롯데호텔과 중국 8개 지방정부*, 일본 규슈 후쿠오카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베이징, 톈진,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지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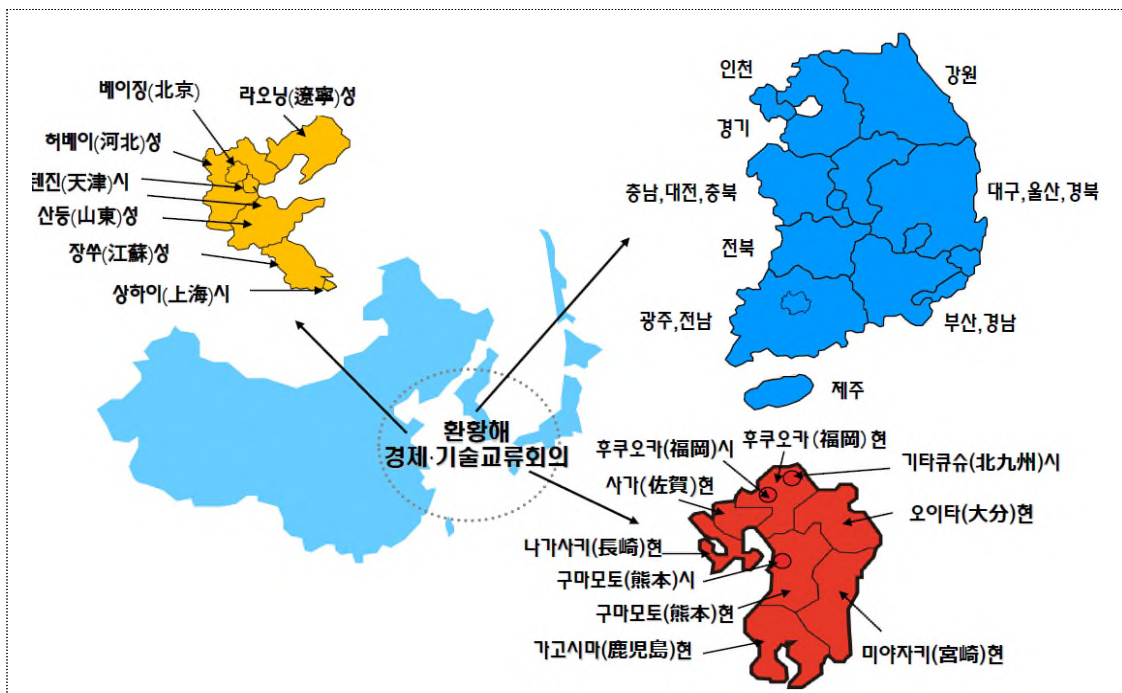
- 동 행사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 중 · 일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00년 ASEAN+3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01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 올해 제20회 회의는 한국 주최로 부산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온라인을 병행하여 3국의 관계자 및 기업인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 '22.11.25(금) 15:00~19:15, 롯데호텔 부산(3F 크리스탈볼룸)
- ◇ 주최/주관 : (韓) 산업통상자원부 / 한일경제협회, (中) 상무부
(日)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등
- ◇ 참석자 : (부산)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사카타 나츠코 TCS(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중국) 양웨이첸 상무부 아주사장, (일본) 나무라 키미히데 규슈경제산업국장 등 300여명

-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경제·기술’ 분야와 ‘지역 교류’ 분야에서 다양한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韓산업연구원, ^中창춘 국제협력시범구, ^日(주)쿠린카 등 10개 기관·기업이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3국 공동의 당면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 지역 교류 분야에서는 ^韓부산광역시, ^中장쑤성·광둥성·산둥성, ^日큐슈 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산업 대전환기에서 각 지역을 매개로 한 3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특히, 부산광역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며, 중국 및 일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전 세계 GDP의 26%,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3국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공급망 형성,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과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 참여 지역>



참 고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개요

- 일 시 : 2022. 11. 25(금), 15:00~19:15
- 장 소 : ^韓롯데호텔 부산, ^中베이징 등 8개 지역, ^日큐슈 후쿠오카
- 주최/주관
 - (韓) 산업통상자원부 / 한일경제협회(^{금년 한국 주최국})
 - (中) 상무부
 - (日)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큐슈경제연합회, 구마모토시
- 참석자 : 韓·中·日 관계자 및 기업인 300여명
 - (韓)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축사}), 신재현 부산광역시 국제관계 대사(^{축사}),
사카타 나츠코 TCS 사무차장(^{축사}), 왕종용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쿠리타 신이치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 등
 - (中) 구오춘슈이 아주사 부사장(^{축사})
 - (日) 나무라 키미히데 큐슈경제산업국장(^{축사}),
호리에 히로시게 큐슈경제연합회 상무
- 테 마 : ‘지역 간 교류의 촉진’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15:00~15:10	(10')	회의체 소개 및 그간 활동		한일협회 부회장
15:10~15:35	(25')	축사(산업부 → 中상무부 → 日경산성 → 韓부산 → TCS)		
15:35~15:45	(10')	내빈인사 및 기념촬영		
15:45~17:40	(115')	분 발 약 표	(경제·기술) 韓·中·日 총 11개 기관 발표	韓·中·日 순차발표
17:50~18:55	(65')		(지역 교류) 韓·中·日 총 7개 기관 발표	
18:55~19:15	(20')	차기 개최지 소개 및 폐회, 기념촬영		中다롄시 국장
19:30~21:00	(90')	만찬 교류회		

省商务厅领导参加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

发布时间：2022-11-30 09:36

11月25日，由中国商务部、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共同举办的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线召开。会议由韩日经济协会常勤副会长徐锡崇主持，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协力局局长金钟哲、中国商务部亚洲司二级巡视员郭春水、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局长苗村公嗣分别致辞，三国政府机构及企业家代表就“经济技术交流”“地区交流”等主题分别发表主旨演讲。省商务厅副厅长孙津出席会议。



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始于2001年，由中日韩三国政府共同主办，是促进三国泛黄海地区间投资、贸易、文化、旅游等领域交流的重要次区域合作机制。此前，机制已召开19次会议，对促进包括我省在内的泛黄海省份与日韩经贸交流发挥了重要积极作用。第20次泛黄海会议以“促进地区之间的交流”为主题，来自中日韩三国代表300余人线上参加会议。我厅在苏州和盐城设两个分会场，组织了两市商务局及中日（苏州）地方发展合作示范区、中韩（盐城）产业园参加会议，苏州市相城区委副书记、区长张伟在分会场作“云上纷呈·筑梦相城”主题交流发言，对苏州相城区发展潜力及营商环境作了推介。

省商务厅合作处，驻日本、韩国经贸代表处相关负责同志参加会议。

출 처 : http://doc.jiangsu.gov.cn/art/2022/11/30/art_78722_10692317.html



首页

政务公开

商贸流通

外贸

外资

首页>新闻动态>商务要闻

第20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举办

发布日期：2022- 11- 29

信息来源：山东省商务厅

浏览次数： 次

字体：【大 中 小】

11月25日下午，第20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以线上线下相结合的方式举行。会议由商务部亚洲司、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韩国产业通商资源部主办，以“促进地区之间的交流”为主题，就跨境电商、碳中和技术、RCEP、供应链重组、人工智能以及地区交流等领域进行了深入探讨。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协力局局长金钟哲、中国商务部亚洲司二级巡视员郭春水、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局长苗村公嗣出席会议并致辞。来自中日韩三国经贸主管部门以及北京、天津、河北、辽宁、吉林、上海、江苏、山东、广东等9省市和韩国、日本有关地方政府、企业代表350多人参加会议。省商务厅副厅长吕伟出席会议并作了“高质量实施RCEP 为泛黄海区域经贸合作注入新动力”推介发言。青岛市、淄博市、德州市、滨州市、菏泽市设立分会场参会。（亚洲处供稿）

출처 : http://commerce.shandong.gov.cn/art/2022/11/29/art_16256_10312392.html

辽宁省商务厅组织参加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线上交流会议

2022-11-29 12:34:16 来源：中国商务新闻网 作者：张淼

中国商务新闻网 由中国商务部、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共同主办的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日前于线上举行，主会场设在韩国釜山市。会议由韩日经济协会专职副会长徐锡崇主持，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协力局长金钟哲、中国商务部亚洲司巡视员郭春水、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长苗村公嗣分别发表致辞，三国政府机构及企业家代表就“经济技术交流”“地区交流”等主题分别发表主旨演讲。辽宁省商务厅党组成员、副厅长潘爽在沈阳分会场代表辽宁发言，大连市商务局局长李汉国代表下届会议举办地主办方在大连分会场做推介。



潘爽在发言中介绍了辽宁独特的区位优势、广阔的合作平台、良好的对日韩经贸合作基础以及有力的吸引外资政策措施，并就加强辽宁与日韩合作提出了共同推动产业合作共蓄发展动能、参与辽宁创新驱动发展、参与中日韩产业园区建设以及参与东北海陆大通道建设等提出四点建议。

中日韩泛黄海经济技术交流会议始于2001年，旨在促进环黄渤海三国地区间的贸易、投资、旅游、文化等领域的次区域交流合作机制。截至目前，已召开19次会议，对促进辽宁省与日韩有关地方间经贸交流与合作发挥了重要积极作用。受新冠肺炎疫情影响，继2021年在日本九州举办的第19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改以线上方式举行后，第20次会议延续了线上会议模式。

本次会议主题为“促进地区间的交流”，中国商务部、泛黄海机制相关省市商务主管部门、韩国产业通商资源部、韩日经济协会、韩日产业技术协力财团、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九州经济国际化推进机构、九州经济联合会以及中日韩三国自治团体、经济团体、企业界有关人士，约500人在各国分会场参加了会议。

辽宁省商务厅二级巡视员迟新明，厅外国投资管理处、开发区管理处、外商投资促进处等处室负责同志在省商务厅分会场陪同参会，各市商务（招商）部门在本地区设分会场参会，鞍山市经济开发区、丹东东港经济开发区、阜新氟产业开发区、辽阳经济开发区、朝阳经济技术开发区、葫芦岛市经济开发区等辽宁省内部分开发区在线参会。（张淼）

출처 : https://www.comnews.cn/content/2022-11/29/content_19477.html

省商务厅组织参加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线上交流会议

辽宁商务 2022-11-28 18:08 发表于辽宁

11月25日下午，由中国商务部、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共同主办的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线召开，会议主会场设在韩国釜山市。会议由韩日经济协会专职副会长徐锡崇主持，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协力局长金钟哲、中国商务部亚洲司二级巡视员郭春水、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长苗村公嗣分别发表致辞，三国政府机构及企业家代表就“经济技术交流”“地区交流”等主题分别发表主旨演讲。省商务厅党组成员、副厅长潘爽在省商务厅分会场全程参加会议并代表辽宁发言，大连市商务局李汉国局长作为下届会议举办地主办方在大连分会场做推介。



潘爽副厅长在发言中介绍了辽宁独特的区位优势、广阔的合作平台、良好的对日韩经贸合作基础以及有力的吸引外资政策措施，并就加强辽宁与日韩合作提出了共同推动产业合作共蓄发展动能、参与辽宁创新驱动发展、参与中日韩产业园区建设以及参与东北海陆大通道建设等四点建议。

中日韩泛黄海经济技术交流会议始于2001年，是旨在促进环黄渤海三国地区间的贸易、投资、旅游、文化等领域的次区域交流合作机制。截至目前，机制已召开19次会议，对促进辽宁省与日韩有关地方间经贸交流与合作发挥了重要积极作用。受新冠肺炎疫情影响，继2021年在日本九州举办的第19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改为线上方式举行后，第20次会议延续了线上会议模式。

本次会议主题为“促进地区间的交流”，中国商务部、泛黄海机制相关省市商务主管部门、韩国产业通商资源部、韩日经济协会、韩日产业技术协力财团、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九州经济国际化推进机构、九州经济联合会以及中日韩三国自治团体、经济团体、企业界有关人士，共计约500人在各国分会场参加了会议。

省商务厅二级巡视员迟新明，厅外国投资管理处、开发区管理处、外商投资促进处等处室负责同志在省商务厅分会场陪同参会，各市商务（招商）部门在本地区设分会场参会，鞍山市经济开发区、丹东东港经济开发区、阜新氟产业开发区、辽阳经济开发区、朝阳经济技术开发区、葫芦岛市经济开发区等省内部分开发区在线参会。



출처 :

https://mp.weixin.qq.com/s?__biz=MzlyNjY2Mjk0Mw==&mid=2247508705&idx=1&sn=39b27c95b3bf3d0e3d2f1aa255a8969c&chksm=e86fed91df186487f8b92e79499755dfa2bf221cc1a2ff490cbd771ccdc73c3cbbf3494b117d&scene=27

河北省商务厅组织参加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线上交流会议

发布时间：2022-11-27 来源：河北省商务厅

11月25日下午，河北省商务厅组织石家庄、秦皇岛、唐山、沧州、廊坊等市参加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线上交流会议。安静副厅长代表我省线上出席会议。会议由中国商务部、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本经九州经济产业局共同主办，主题为“促进地区间交流”，旨在促进环黄渤海三国地区间贸易、投资、旅游、文化等领域的交流和合作。三国政府机构及企业家代表围绕贸易投资促进、供应链、碳中和、数字经济及地区交流等议题进行交流。石家庄市投资促进局局长赵勇、唐山商务局一级调研员杜成林、沧州经济开发区投资促进局局长孙博分别推介了当地投资环境，并提出重点合作领域。投促二处有关负责同志线上参会。

(投促二处)

출처 : <https://www.hebei518.org.cn/info.php?id=7771>

集采易:参加第20次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线上交流会议

更新时间：2022-11-27 22:35:05 点击次数：139 次 字号：作者：集采易

为加强中日韩三国有关地方经济、技术等领域交流合作，促进泛黄海地区协同发展，11月25日下午，由中国商务部、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本九州经济产业局共同主办的第20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韩国釜山成功举行。来自中日韩三国商务主管部门、地方政府、经济团体及企业代表等300余人以线上线下方式参会交流，集采易公司线上参会。

本届会议以“促进地区之间交流”为主题，韩日经济协会常勤副会长徐锡崇主持会议，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协力局长金钟哲、中国商务部亚洲司二级巡视员（副司级）郭春水、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局长苗村公嗣分别致辞，三国相关政府机构、专家学者及企业家代表等就贸易投资促进、供应链、碳中和、数字经济等议题发表演讲。

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始于2001年，由中日韩三国政府商务主管部门共同主办，是促进三国泛黄海地区间投资、贸易、科技、文旅等领域交流的重要次区域合作机制。该会议已成功举办20届，对促进参会省市与日韩有关地方间交流与合作发挥了积极作用。第21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定于2023年在中国大连举行。

출처 : <http://huxingroup.com/listshow.php?cid=45&id=640>

市商务局线上参加第20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

孔端端 大连商务 2022-11-26 18:57 发表于辽宁



为加强中日韩三国有关地方经济、技术等领域交流合作，促进泛黄海地区协同发展，11月25日下午，由中国商务部、韩国产业通商资源部、日本九州经济产业局共同主办的第20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在韩国釜山成功举行。来自中日韩三国商务主管部门、地方政府、经济团体及企业代表等300余人以线上线下方式参会交流。

本届会议以“促进地区之间交流”为主题，韩日经济协会常勤副会长徐锡崇主持会议，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协力局长金钟哲、中国商务部亚洲司二级巡视员（副司级）郭春水、日本经济产业省九州经济产业局局长苗村公嗣分别致辞，三国相关政府机构、专家学者及企业家代表等就贸易投资促进、供应链、碳中和、数字经济等议题发表演讲。辽宁省商务厅副厅长潘爽以《以建设辽宁东北亚经贸合作中心枢纽为突破 打造全面对外开放新前沿》为题做交流推介。



作为下一届举办地城市代表，市商务局李汉国局长在会上发言，向中日韩三国有关各方发出参会邀请。他表示，大连市作为中国重要的港口城市和东北地区对外开放的窗口，山海秀色、文明宜居、交通便利，是经济繁荣与技术创新的热土，也是要素集聚、创业投资的宝地。欢迎中日韩相关政府机构、经济团体及企业代表在明年会议举办之时来连相聚，共商合作、共谋发展。


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始于2001年，由中日韩三国政府商务主管部门共同主办，是促进三国泛黄海地区间投资、贸易、科技、文旅等领域交流的重要次区域合作机制。该会议已成功举办20届，对促进参会省市与日韩有关地方间交流与合作发挥了积极作用。第21届泛黄海中日韩经济技术交流会议定于2023年在中国大连举行。市商务局将依托会议平台和资源，全面展示我市对日韩合作优势和前景，推动我市与东北亚地区各城市之间的经贸融合和产业链链接，拓宽投资合作渠道，为我市构建中日韩经贸合作示范区、打造对外开放新前沿提供有效助力。

출처 :

https://mp.weixin.qq.com/s?__biz=MzIzOTUwMDg2MA==&mid=2247496799&idx=1&sn=5b6fe0cb569366148714a35b58cf1361&chksm=e92b9f0cde5c161a7d8d2e3453b765401336131dd10beb85507942004dfbe3f645b29de0d7a2&scene=27

22. 12. 9. 土曜 7:08

「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釜山会合：オンライン）」を開催します


 経済産業省
 九州経済産業局
Kyushu Bureau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本文へ](#) | [ご意見・お問い合わせ](#) | [サイトマップ](#)

[政策紹介](#)
[報道発表](#)
[イベント情報](#)
[補助金・公算](#)

[九州経済産業局](#) > [報道発表](#)
 > [イベント情報](#)
 > [政策紹介](#)

「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釜山会合：オンライン）」を開催します

最終更新日：2022年11月18日
九州経済産業局

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九州経済産業局、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は、韓国・中国と協力のもと、11月25日（金曜日）に福岡市において、九州・韓国・中国の環黄海地域における経済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をオンラインと対面のハイブリッド形式で開催します。

今回は、環境、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デジタル等の分野で各国の企業や大学、関係機関等から御登壇いただきます。ご関心のある方は傍聴することも可能ですので、是非お申し込み下さい。

日時

2022年11月25日（金曜日） 15時00分～19時15分

開催方法

オンラインと対面のハイブリッド開催

対面参加の場合

場所：電気ビル 共創館 カンファレンスA（福岡市中央区渡辺通2丁目1番82号）
定員：80名
※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状況によって変更可能性有。

オンライン視聴の場合

Webexによるオンライン配信（同時通訳）
※事前に視聴用URLを送付予定。


参加者

九州、中国、韓国の政府機関、企業等 計300名程度

申込方法

11月18日（金曜日）までに、以下の申し込みフォームまたはQRコードに必要事項を記入の上、お申し込みください。

• [申し込みフォーム](#)



個人情報の取扱いについて

- ご提供いただいた個人情報は、事務局（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九州経済産業局、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株式会社西日本新聞メディアラボ（本事業に係る委託事業者）、株式会社西日本新聞イベントサービス（本事業に係る委託事業者）が、本事業（「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の運営においてのみ使用し、事務局においてその保護について万全を期すとともに、ご本人の同意なしに事務局以外の第三者に開示、提供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 オンライン形式（Cisco Webex Meetings）では、入室時に設定した登録名が画面に表示されます。個人情報保護の観点から、「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開催当日は、公表可能な名称を設定してください。（ご参加いただくための入室用URLをお知らせする際にも、改めてご案内いたします。）

内容

15時00分～15時10分	開会及び第20回記念映像放映
15時10分～15時40分	三力国代表挨拶 韓国 産業通商資源部 通商協力局 局長 金 鍾喆 氏

https://www.kyushu.meti.go.jp/press/2210/221019_1.html

1/3

- 85 -

中国 商務部 亞洲司 副司長 余 翔 氏

経済産業省 九州経済産業局 局長 苗村 公嗣

開催地挨拶

釜山広域市 経済副市長 李 成権 氏

来賓挨拶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事務次長 坂田 奈津子 氏

15時35分～15時40分

記念撮影

15時45分～18時55分

三カ国における技術・取組の紹介

経済・技術分野

● 九州

「気候変動に対応した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技術の紹介～災害レジリエンス向上に向けて～」

株式会社くりんか 代表取締役社長 榎木 真一 氏

「廃電子基板(都市鉱山)に含まれる資源の損失を減らし、その価値を高める方法」

株式会社アステック入江 FM事業部 技術グループリーダー 高橋 宏幸 氏

「資源の有効利用によるサツマイモ発電」

霧島酒造株式会社 グリーンエネルギー本部 本部長 田原 秀隆 氏

● 韓国

「韓・中・日3国のオンライン取引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現況と協力手法について」

財団法人釜山研究院 経済産業研究室 研究委員 張 正在 氏

「東アジア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と韓中日の協力」

産業研究院 産業通商研究本部 本部長 金 啓煥 氏

「韓・中・日人工知能技術の革新とグローバル競争力確保のための協力手法について」

東義大学校 人工知能ブランドICT研究センター長 鄭 錫賢 氏

「急速に再編される北東アジアの秩序の変化と韓中日3国の協力」

翰林国際大学院大学 教授 姜 啓斗 氏

● 中国

「国際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構築及び北東アジア経済貿易協力の強化」

中韓(長春)国際協力示範区 党工委书记 徐 勇 氏

「日韓中の経済貿易協力の増進、ハイレベル発展のための新たなエンジンの確保」

河北省瀋州経済開発区 投資促進局 局長 孫 博 氏

「石家荘市の期待に満ちた未来」

河北省石家荘市投資促進局 局長 趙 勇 氏

「遼寧省北東アジア経済貿易協力センターの建設による全面的で対外開放的な新たなフロンティア開拓について」

遼寧省商務庁 副庁長 潘 爽 氏

地域間交流分野

● 九州

「ツール・ド・九州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 観光社会基盤部 部長 中川 信治 氏

● 韓国

「未来世代のための遠大な挑戦！ 2030世界博覧会を釜山に誘致!!」

釜山広域市 対外協力課 交渉支援チーム長 黄 炫棋 氏

「韓・中・日循環的人的資本と技術の蓄積と発展のためのガバナンスの構築」

延世大学校 政治外交学科 教授 金 相準 氏

● 中国

「オンラインで活発につながり相城で夢を実現しよう」

江蘇省蘇州市相城区 区長 張 偉 氏

「大湾区に集まって互恵共栄を図ろう」

広東省惠州市商務局 副局長 劉 志宏 氏

「2022年の唐山市の投資環境についてのご紹介～投資誘致のための絆、投資へ向けた架け橋～」

唐山市商務局 副局長 瞿 新宇 氏

「RCEPの質の高い推進による環黄海地域の経済貿易協力に向けた新たな取組について」

山東省商務庁 副庁長 呂 偉 氏

18時55分～19時05分 次期開催地紹介

遼寧省大連市 商務局 局長 李 漢国 氏

19時05分～19時15分 全体総括及び閉会挨拶

社団法人韓日経済協会 常勤副会長 徐 錫崇 氏

「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とは

東アジア・環黄海地域の経済圏域の発展と交流の深化を目指す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2001年3月にスタート。これまでに九州・韓国・中国の順に持ち回りで19回開催。三国政府（日本：九州経済産業局、韓国：産業通商資源部、中国：商務部）によるコミットのもと、年に一度、三国の関係者が一堂に集い、交流を深化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開催しているもの。

なお、環黄海地域とは、上海から大連、仁川から釜山に至る韓国・中国沿岸部及び九州からなる黄海を取り巻く地域経済エリア。



開催実績

第1回(2001年 3月)：福岡市	第2回(2002年10月)：韓国全州市
第3回(2003年 9月)：中国威海市	第4回(2004年10月)：宮崎市
第5回(2005年11月)：韓国大田広域市	第6回(2006年11月)：中国日照市
第7回(2007年11月)：熊本市	第8回(2008年10月)：韓国仁川広域市
第9回(2009年 7月)：中国煙台市	第10回(2010年10月)：北九州市
第11回(2011年11月)：韓国太田広域市	第12回(2013年11月)：中国連雲港市
第13回(2014年11月)：佐世保市	第14回(2015年11月)：韓国釜山広域市
第15回(2016年 7月)：中国塩城市	第16回(2017年11月)：鹿児島市
第17回(2018年11月)：韓国全羅北道群山市	第18回(2019年11月)：中国済寧市
第19回(2021年11月)：熊本市※オンライン会合	

参考

- 「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開催案内チラシ(PDF:1,376KB)

本発表資料のお問い合わせ先

九州経済産業局 国際部 国際事業課長 今村

担当者：大和、吉本、有馬

電話：092-482-5942（直通） FAX：092-482-5321



九州経済産業局 〒812-8546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東2丁目11番1号 福岡合同庁舎本館（6階、7階）

> 周辺図・交通案内 > 組織表&電話番号一覧（ダイヤルイン）

| リンク | 利用規約 | 法的事項 |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 |

Copyright © Kyushu Bureau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ll Rights Reserved.

출처 : https://www.kyushu.meti.go.jp/press/2210/221019_1.html

【11月25日】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釜山会合：オンライン）」を開催します
2022年10月19日

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九州経済産業局、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は、韓国・中国と協力のもと、11月25日（金曜日）に福岡市において、九州・韓国・中国の環黄海地域における経済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をオンラインと対面のハイブリッド形式で開催します。
今回は、環境、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デジタル等の分野で各国の企業や大学、関係機関等から御登壇いただきます。ご関心のある方は傍聴することも可能ですので、是非お申し込み下さい。



◆日時 2022年11月25日（金曜日）15時00分～19時15分

◆場所 オンラインと対面のハイブリッド開催（参加無料）

＜対面参加の場合＞

電気ビル 共創館 カンファレンスA（福岡市中央区渡辺通2丁目1番82号）

定員：80名※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状況によって変更可能性有。

＜オンライン視聴の場合＞

Webexによるオンライン配信（同時通訳） ※事前に視聴用URLを送付予定。

◆主催

九州：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九州経済産業局、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

韓国：産業通商資源部、社団法人韓日経済協会

中国：商務部

◆内容

①三カ国代表挨拶

韓国：産業通商資源部 通商協力局 局長 金 鍾喆

中国：商務部 亞洲司 副司長 余 翔

九州：九州経済産業局 局長 苗村 公嗣

②開催地挨拶 釜山広域市 市長（調整中）

③来賓挨拶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④三カ国における技術・取組の紹介

＜経済・技術分野＞

九州:株式会社くりんか 代表取締役社長 榎木 真一 氏

九州:株式会社アステック入江 FM事業部 技術グループ 高橋 宏幸 氏

九州:霧島酒造株式会社 グリーンエネルギー本部 本部長 田原 秀隆 氏

九経連の活動 | 九州経済連合会

韓国:釜山研究院 経済産業研究室 研究委員 張 正在 氏
韓国:東義大学校 人工知能ブランドICT研究センター長 鄭 錫贊 氏
(他3社調整中)

中国:中韓(長春)国際協力示範区 党工委书记 徐 勇 氏
中国:河北省 滄州經濟開發区投資促進局 局長 孙 博 氏
中国:河北省 石家莊市投資促進局 局長 赵 勇 氏
中国:遼寧省 商務庁 副庁長 潘 爽 氏

<地域間交流分野>

九州: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 観光社会基盤部 部長 中川 信治
韓国:釜山広域市 対外協力課 交渉支援チーム長 (調整中)
中国:江蘇省 蘇州市相城区 区長 張 伟 氏
中国:広東省 惠州市商務局 副局長 劉 志宏 氏
中国:唐山市 商務局 副局長 翟 新宇 氏
中国:山東省 商務庁 副庁長 呂 伟 氏

⑤次期開催地紹介

⑥全体総括 & 閉会挨拶

【参加申し込み方法】

申し込みフォームに必要事項をご入力の上、11月18日(金曜日)必着でお送りください。
なお、同一社内で複数名の申し込みの際は、お手数ですが、1人1通の申込みをお願いいたします。

※参加申込多数の場合はお断り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お早めにお申し込みください。

〔申し込みフォームURL〕

https://fihb.fmsgsjp/webapp/form/22521_fihb_297/index.do

<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ついて>

・ご提供いただいた個人情報は、事務局（九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九州経済産業局、一般社団法人九州経済連合会、株式会社西日本新聞メディアラボ（本事業に係る委託事業者）、株式会社西日本新聞イベントサービス（本事業に係る委託事業者）が、本事業（「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の運営においてのみ使用し、事務局においてその保護について万全を期すとともに、ご本人の同意なしに事務局以外の第三者に開示、提供す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

・オンライン形式（Cisco Webex Meetings）では、入室時に設定した登録名が画面に表示されます。個人情報保護の観点から、「第20回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開催当日は、公表可能な名称を設定してください。（ご参加いただくための入室用URLをお知らせする際にも、改めてご案内いたします。）

<参加注意事項>

会議は原則オンラインでの開催となりますが、オンラインでの視聴が困難な事情のある方については、80名程度まで会場参加が可能です。なお、感染状況により、完全オンライン参加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当日の感染状況によっては、対面参加者の方に関してはオンラインでの参加をお願いする場合がございます。予め御了承ください。

【参考】「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について

東アジア・環黄海地域の経済圏域の発展と交流の深化を目指す経済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2001年3月にスタート。これまでに九州・韓国・中国の順に持ち回りで19回開催。三カ国政府（日本：九州経済産業局、韓国：産業通商資源部、中国：商務部）によるコミットのもと、年に一度、関係者が一堂に集い、交流を深化させることを目的とする。
なお、環黄海地域とは、上海から大連、仁川から釜山に至る韓国・中国沿岸部及び九州からなる黄海を取り巻く地域経済エリア。

출처 : https://www.kyukeiren.or.jp/committee/index.php?committee_id=5&id=3682&page=